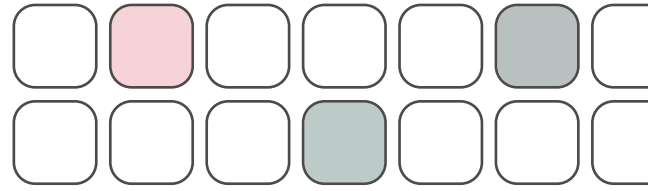


VD RADAR



벤처관련



중기청, 신기술창업기업4만개 육성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창업을 촉진하

기위한 창업보육사업장 · 단기 대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 12월 18일 중소기업 창업보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4만여 개의 신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98년부터 창업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B) 건립 및 운영지원을 본격 추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현재 대학 ·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 69개 B 센터를 운영중이다

맞춤형기능인력 양성에 95억 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금년 대비 대폭 증가한 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현장의 직무를 분석, 이를 교육과정으로 개발 · 편성하여 공고 3학년생을 1년간 훈련시켜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이다. 참여학교에는 맞춤형 교육훈련에 따르는 제반 사업추진 운영비와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참여 공고생에게는 연간 120만원 내외의 훈련비(고용보험기금과 협약취업기간(2년)중 입영 연기,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신규 직원의 재교육에 따른 시간 ·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당해 기업에 맞춤형으로 양성된 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2008년도 정보화 지원사업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정보화 수준 향상을 통한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구축, 정보화 교육, 생산공정디지털화, 업종별 클러스터 등 4개 사업, 180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보화 지원사업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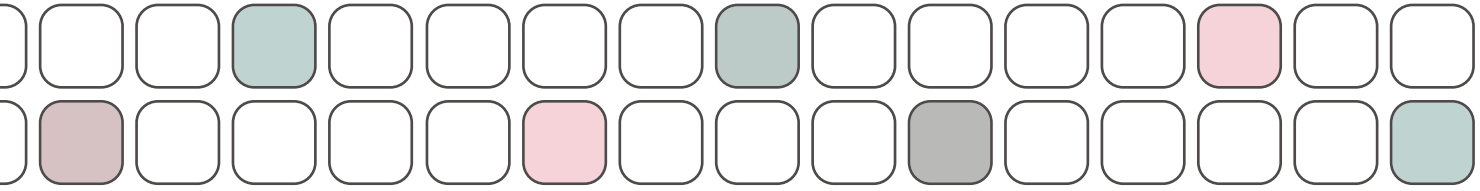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완료 후 제시한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에만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정보시스템 운영 · 관리요령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지원기업 선정시 사후관리 의지 · 계획의 평가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하여,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내 인력과 IT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진단 · 해결 등 정보화 AS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스템 구축기업 중 활용의지는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 ·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에도 커플 매니저 등장

해와바이어와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기업간 커플매니저가 탄생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국적기업 등 해와바이어들의 아웃소싱 발주정보 수집 및 분석(신용조회)하고, 관련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 중소기업 발굴 · 매칭을 통해 수출계약성공률 제고를 지원하는 「글로벌아웃소싱 지원센터」가 가동된다.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센터」는 중기청에서 운영하며 다국적 기업이 발주하는 아웃소싱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아웃소싱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의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 · 지원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기반을 통해 해와바이어와 중소기업의 신용조회 및 일선부터 계약진행, 수출대금 회수까지 수출절차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수출거래알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글로벌아웃소싱지원센터 사이트(www.bizmatchkorea.com)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해와바이어 신용조회 및 인콰이어리 처리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글로벌 아웃소싱 지원센터(02-769-6694)로 하면 된다.

과기부,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 수립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원자력에 대한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 시안을 수립 · 발표했다. 로드맵에서는 향후 배치될 대형 및 중소형원자로, 기존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과 관련한 고준위 및 중저준위 폐기물관리 시설에 대한 예측일정, 소듐냉각고속로 및 핵연료 추진일정, 현재의 경수로와 미래원전 사이의 상호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듐냉각고속로(SFR) 및 선진핵연료(AFO)와 관련된 핵연료 제조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현재 우리의 R&D 투



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R&D 투자를 추진해 나간다. 과거부는 미래원자력 개발목표와 추진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개발과정 중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미래원전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미래원전 분야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미래원자력 연구개발 과정의 주요 결과물을 제시하여 중장기 성과지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M&A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KOTRA(사장 홍기화는) 우리나라의 해외M&A 진출을 확대하고자 「글로벌 M&A 진출전략 설명회」를 KOTRA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12월 7일 개최했다. 미국, 독일, 일본의 M&A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M&A 동향 및 진출환경, 진출 유망업종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국내기업과 방한 연사와의 해외M&A 진출 개별상담도 마련됐다. 독일은 나노, 바이오테크, 첨단의료장비 등에서 우수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후계자문제, 경영악화, 글로벌 환경에 대한 구조 조정 등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매물이 시장에 다수 출현해 우리 기업에게는 유망한 글로벌 진출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M&A 진출실적은 총 9억 2천 3백만 달러로 전 세계 해외 M&A 진출 금액 가운데 불과 0.1%를 차지, 아시아권에서도 중국(149억 4백만 달러), 일본(144억 7천 9백만 달러), 인도(47억 4천만 달러) 다음으로 아직 저조한 편이라 최근 우리경제의 유망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 대구테크노폴리스실시 계획 승인

대구가 역점 추진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24일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본격 추진된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

성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담아낼 새로운 도시공간미션을 위해 연구와 산업, 주거, 교육, 문화, 레저기능이 조화된 미래형 첨단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일반적인 신도시개념에서 탈피한 첨단, 문화, 생태주거환경이 어울리는 첨단 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지구내 북쪽에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이 들어선다. 이외에 국립대구과학관 등 공공 및 민간연구소와 대학 부설 연구소 등이 각각 연구단지내 입주할 계획이다. 대

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고용유발 효과 8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3조 4724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 3758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지역중소기업 살리기에 힘찬 발걸음

경상북도에서는 국제유가상승, 원화절상, 내수부진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8년 중소기업운전자금 4,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8년 설 운전자금(1,000억 원 규모)을 신청접수 받아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업체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업체대출금리는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일부(3%)를 제한 금리가 적용되며, 도비 및 시·군비로 이자차액(3%)을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신청일 현재가 동 중인 지역의 중소기업체로 지원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 13개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 접수기간은 2008년 1월 7일까지이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에서 접수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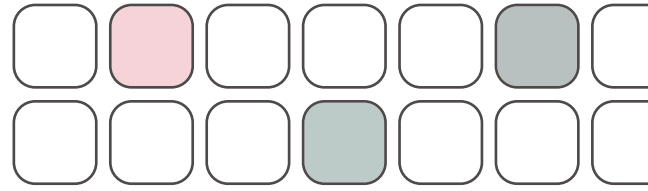
전남도, 중남부권 산업단지 본격 조성

전라남도는 최근 대규모 SOC 확충, 조선산업의 활황 등에 힘입어 도내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중남부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의 입자수요를 충족시켜 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진 성전, 장흥 해당·회진, 보성 득량 등 4개소에 총 면적 800만㎡ 규모의 산업단지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농수산업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중남부권 낙후 밀집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도내 권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들의 산업 특성과 비교우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산업, 바이오산업, 신약산업, 건강관련산업 등이 복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중남부권 산업단지 조성에 약 5,3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1조 2,077억 원, 부가가치가 2,681억 원, 고용효과가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VD RADAR



광양만권 U-IT연구소 개소

지역 IT산업발전 및 IT R&D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된 광양만권 U-IT연구소가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2006. 12월 정보통신부 지역특화연구소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2010년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자하여, 광양만권의 제조/물류산업관련 IT융합기술의 실용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전남지역의 제철·석유화학 등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연계한 지역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특히 이 연구소는 앞으로 인천의 항공물류, 부산의 항만물류산업과 함께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광양 항만물류 작업의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으로서의 산업경쟁력을 배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학이 주관하는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형태로 출범하게 되는 본 연구소는 순천대학교가 주관(소장 조병록)이 되어 4개팀 12명이 근무하게 되며, 주요시설로는 실험실, 시제품제작실, 바츨얼연구센터, 체험실 등이 있다.

울산중기센터, JAVA 전문교육과정 개설

울산 지역에 부족한 IT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울산시 중소기업진흥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와 한국과학기술원(소장 류인수)이 공동으로 울산대학교 컴퓨터 교육장을 활용하여 JAVA Programming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전문교육과정은 지역 IT 관련 기업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련분야 전문 인력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설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2008년 3월 말까지 4개월 과정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재비도 중기센터가 지원하여 교육과정 전체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 JAVA 인력을 필요로 하는 울산지역 업체는 중기센터(052-222-6214)로 문의하면 교육 완료 후 인력 채용 관련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



연구원

R&D 인력 전문교육기관 탄생

R&D 인력 전문교육기관 탄생

24만 명에 달하는 국내 R&D 인력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전문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여 R&D 분야의 인력 수준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전망이다. 국내 연구계, 학계, 산업계 R&D 전문인력의 끊임없는 자기개발 및 변화·혁신을 견인할 R&D 인력 전문교육기관인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이 개원했다. 연구

개발인력교육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연구사업 전문관리기관 종사자 ▲과학기술 관련 정책입안자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능력 및 지질(기본교육), 분야별 최근 과학기술 동향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직무교육), 관리자 교육 등이다. 특히 교육내용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교육 중장기 로드맵 작성, 연구개발 인력 평생 상시 자기학습·교육시스템 구축, 아웃소싱,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SW진흥원, SW Insight 정책리포트 발표

온라인 내비게이션으로 진화하는 모바일 웹2.0의 활성화를 위해 지리정보 기업 간 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명민)은 SW Insight 정책리포트 12월호 '지리정보로 열거는 모바일 웹2.0 세상'에서 모바일 웹2.0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중심에 협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노키아의 나브테크 인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과 가민의 텔레 이틀러스 인수시도 등은 지리정보의 중요성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리정보 중심의 매쉬업 기반으로 모바일 웹2.0이 진화하고 있음을 분석했고, 국내 환경에서 지리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다음의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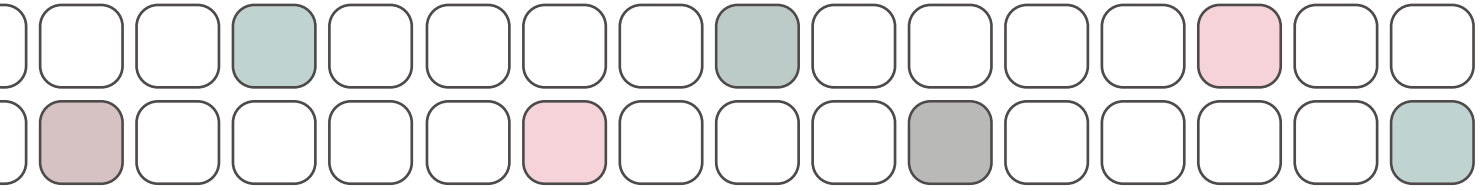


대덕특구

대덕특구 국방벤처센터 설립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와 국방기술품질원(원장 김철환)은 고등개념의 대덕특구 국방벤처센터 공동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등개념의 대덕특구 국방벤처센터

는 방위산업의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부품 전문 업체로 발전 및 차기 체계개발 사업에 전문기술 분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20여개 업체를 입주기업으로 모집한 뒤 2008년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설립하게 될 대덕특구 국방벤처센터는 국군이 사용하는 부품·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유치 및 방위산업진출지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산화, 해외수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의 핵심부품·소재를 개발 및 생산 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하고 있다

대덕특구첨단기술사업화대전 큰 성과 이뤄

국내외 첨단기술 교류 및 사업화비즈니스 장인 '2007 대덕특구 첨단기술사업화대전'을 통해 400만 불의 수출계약과 2,500만 불 상당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는 등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안철)은 지난 12월 13일~14일 대덕특구본부와 대전무역전시관 등에서 개최한 '2007 대덕특구 첨단기술사업화대전'에 국내외 바이어와 금융 및 산학연 관계자 등 총 5,0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전시기간 중 일본과 중국·홍콩·대만·태국·타이 등 6개국 50여명의 바이어가 참석, 특구 기업들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대덕위성 등 4개 기업이 373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한미 FTA가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개최된 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술컨퍼런스에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중견기업 연합회, 구미클러스터, 포항테크노파크 등 국내 산업클러스터도 대거 참석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연계 발전에 대한 방안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해외벤처

美 실리콘밸리, 스마트폰밸리로 떠올라

미국 실리콘밸리가 '스마트폰 밸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야후·e

베이와 같은 기업이 인터넷 프로토콜(IP)에 기반을 둔 통신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실리콘밸리가 통신의 새로운 물결을 주도하는 '이노베이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노키아는 최근 실리콘밸리에 있는 원격 네트워크 업체 '아비뉴'를 인수했다. 노키아는 과거 10년 동안 총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실리콘밸리에 있는 IP 스위칭 업체 '입슬론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10개 기업을 인수했다. 노키아 경쟁업체인 에릭슨도 실리콘밸리 기반 IP 라우팅 전문업체 '레드백 네트워크'를 19억 달러에 인수했다.

애플은 올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구글

은 지난달 모바일 시장을 겨냥해 오픈 소스 플랫폼을 위한 'OHA(Open Handset Alliance)'를 출범시켰다.

시스코는 지난 2005년 사이언티픽 애플랜타를 69억 달러에 인수해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99년 AT&T 지분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e베이는 인터넷전화 업체인 스키이프를 구글도 올해에만 통신과 관련해 '징쿠'를 비롯한 3개 기업을 전격 인수했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첫 순수 휴대폰 기업을 표방하며 '리벳'이라는 벤처 기업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등 반도체와 컴퓨팅 중심이었던 실리콘밸리에 통신 기술이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했다. 세계적인 화학업체 듀폰이 자동차 소재에 이어 전자소재로 영역을 넓히며 왕성한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갈로르,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부상

인도의 방갈로르가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방갈로르가 또 다른 실리콘밸리로서 곧 군수업자들과 벤처사업가들로 넘쳐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의 벤처업체들이 인도로 유입되고 있고, 인도의 혁신적인 신생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방갈로르의 장점은 값싼 노동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이다. 방갈로르는 인도에서 연간 5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 10년 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미국의 뉴스위크 역시 방갈로르를 '21세기를 이끌어갈 세계 10대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벤처기업 전용 증권시장 개장

싱가포르거래소(SGX)가 SESDAQ을 개선한 벤처기업 전용 증권시장을 지난 12월 17일부터 기동했다. SGX는 런던증권거래소의 신흥기업 전용시장인 AIM을 모델로 했으며 개장과 함께 투자자 보호와 양질의 기업상장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스폰서 선정 및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한다.

현재 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상장심사 및 감독기능을 발행회사의 증시장을 돕는 스폰서 증권회사에 일임하고, 신규주식공개 절차를 간소화해 상장까지의 소요기간을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단축했다. 기존 SESDAQ에서 12~17주간의 상장기간에 비해 SGX에선 5~6주면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비용도 영국 AIM보다 20~30% 낮췄다.